

■ 특집논문 1

의과대학 의학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여 인 석

연세대 의사학과

1. 들어가는 말

최근 의학교육에서 의료인문학, 혹은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그간의 의과대학 교육이 자연과학 일변도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크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자들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당히 넓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색 중에 있으며 그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인문학이란 그 정의에 따르면 의학과 관련된 문(文), 사(史), 철(哲)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인문학의 대표적 분야 가운데 의과대학에서 전통적으로 교육되어온 것은 역사, 즉 의학사였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의학사 교육은 많은 경우 의학이라는 학문의 역사, 다시 말해 학술사로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의학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교육적 필요성에 의해 의료인문학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단순한 학술사로서의 의학사가 아니라 의료인문학 교육의 일부로서 의학사의 위치와 성격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의학이라는 학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의 역사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의학사 교육의 본래적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선 본고에서는 의학사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학사 교육이 앞으로의 의료인문학 교육, 나아가서는 의학 교육 전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미래적 전망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2. 의학사 교육의 역사

의학사 교육은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진 의료와 관련된 인문학 교육 중 가장 역사가 오랜 것이다. 서양의 경우 대략 19세기 초반부터 유럽의 여러 의과대학에서 의학사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경우도 19세기 말부터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학사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¹⁾ 그리고 1928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는 의학사연구소가 설립되어 미국의 의학사 연구와 교육을 선도해나가는 기관으로 자리나게 된다.

현재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의학사가 보다 큰 필수 강좌의 일부(예컨대 의료와 사회)로 제공되는 곳은 총 50개 대학이며 의학사가 별도의 독립된 필수과목으로 요구되는 곳은 6개 대학이었다. 그밖에 65개 의과대학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의학사 강의 없는 경우도 36개 의과대학에 이르렀다.²⁾

한편 한국의 의과대학에서 의학사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해방 직후였다. 의학 교육은 식민지 시기에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어느 학교에서도 의학사가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지는 않았다. 해방 이후 한국의 의과대학에 의학사 강의가 시작될 수 있었던 데에는 김두종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경도부립의과대학에서 의학공부를 하고 만주로 건너가 개원의 생활을 하던 김두종은 뜻한 바 있어 개원의 생활을 정리하고 만주의과대학 동아시아학 연구소에 들어가 의학사 연구에 매진했다.

그러한 중에 해방을 맞아 만주에서 귀국한 김두종은 1946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세브란스 의대에 의학사 강좌를 열고 강의를 담당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7년에는 세브란스 의대와 신설된 이화여대에서 의학사 강의를 담당하였다.³⁾ 이후 여러 가지 역사적 우연이 결합되어 1947년 10월에 김두종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 새로 창설된 의사학 교실을 맡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의학사 연구뿐 아니라 의학사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의학사가 우리나라 의과대학 체제 내에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김두종의 때 이른 은퇴와 그 자리를 이어받은 이영택마저 은퇴함으로써 의사학 교실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게 되었고, 다른 대학에 의사학 관련 교실이 생기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것은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서울대학의 뒤를 이어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인제대, 가톨릭대 등에 의사학 교실, 혹은 의료인문학, 혹은 인문사회이학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와 관련된 인문학적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다만 연세대학과 서울대학

1) Jerome J. Bylebyl, Introduction, *Teaching the History of Medicine at a Medical Cente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9.

2) AAMC, *Curriculum Directory 1998 - 1999*(1998), p.12.

3) 여인석, 「일산 김두종 선생의 생애와 학문」, 『의사학』7(1), (1998), 4쪽.

만이 교실 명칭에 ‘의사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며 다른 대학들의 경우 보다 포괄적인 의료인문학, 인문사회의학, 인문의학 등의 학문명칭을 교실 이름으로 갖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앞으로 생겨날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이러한 교실을 개설하는 의과대학 측의 기대와 요구가 단순히 의학사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의료윤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문학 과목의 개설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학 교실 및 의료인문학 교실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연세대학인데 연세대의 의사학과는 의학사 이외의 다른 의료인문학 관련 교육의 요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의료법윤리학과라는, 의료법과 의료윤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의사학 교실이라는 명칭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의사학과 함께 의료윤리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의 경우와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이 된다.

3. 의학사 교육의 현황

1) 학점 및 개설 시기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 ‘의학사’ 혹은 ‘의사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가 개설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모두 23개 대학, 총 의과대학의 56%가 의학사 과목을 별도로 개설하고 있다. 다만 의학사가 별도의 독립된 과목이 아니라 다른 큰 과목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의과대학에서 의학사 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생각된다.

거의 모든 대학이 1-2학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0.5학점을 부여한 대학도 있다. 강의 시간은 대체로 16시간 내지 32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학기가 16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매 강의 당 1-2시간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연세대학의 경우 다소 특수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본과 1학년의 경우 의학사는 ‘의료와 사회2’의 일부로 들어가 있으며 전체 수업시간은 8시간이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의예과에 독립된 의학사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의예과 의학사 강의는 1학점으로 한 학기 동안 16시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본과 1학년의 ‘의료와 사회2’가 필수과목인 반면 의예과의 의학사 강의는 선택과목으로 개설되며 의예과 학생뿐 아니라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수강이 가능하다.

이처럼 연세대에 의학사가 본과와 예과에 각각 개설된 이유는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과 관련이 있다. 연세대의 경우 기존의 의예과 체제와 의전원 체제를 병행하고 있다. 의학사는 원래 예과 과목으로 개설되었고, 본과에서는 의학사 과목이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데 의전원 학생과 예과 진급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는 2009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교과과정도 시행되면서 의학사 강의가 본과에도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이상의 의학사 강의와는 별도로 본과 2학년의 선택과목으로서 ‘한국의료의 역사와 현실’이라는 과목이 2010년 1분기에 개설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의학사 강의의 개설시기를 살펴보면 의예과와 본과 1학년이 가장 많았고 본과 2학년 이후는 거의 없었다.

<표 1> 전국 의과대학 의학사 강의시간 및 학점

학교	강의시간	학점	
가천의과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6	1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8	1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17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5	1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32	2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32	2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32	2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6 (의사학 및 의사윤리학)	1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6	1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6	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32 (의학의 역사)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 (의학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예과	16 (의학사)	1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5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2 (의학의 역사와 의료윤리)	1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32	2
	의학과	18	1

을지대학교 의학과	17	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6	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6	1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6	1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8	0.5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32	2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포천중문 의과대학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32(의학사)	2

2) 강의인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41개 의과대학들 가운데 의학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절반이 넘지만 의학사 전공자에 의해 강의를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일차적으로 의학사 전공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며 그나마도 이들이 거의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의학사 전공자들이 지방의 의과대학에 출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많은 학교를 담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처럼 의학사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의를 개설된 적지 않은 학교들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즉 의학사에 관심이 있는 다른 전공의 선생님들이 별도의 공부를 통해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강의는 학문의 성격상 유사한 측면이 많은 예방의학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의학사 강의를 주로 의예과와 본과 1학년에 걸쳐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기초의학 담당 교수 중 관심 있는 분들이 담당하기도 한다.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경북대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교실에서 의학사 강의를 담당해왔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학사 전공자의 수가 적은데, 그 적은 수 가운데서도 의과대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의사 출신 의학사 전공자와 역사학에 기반을 둔 의학사 전공자로 나뉜다. 대개 의과대학의 의학사 강의는 전공자이건 아니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드물게 비의사출신의 의학사 전공자가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3) 강의내용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학사 강의의 내용은 짐작할 수 있듯이 대부분 서양의학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그것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의학의 내용이 서양의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학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지극히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로 여겨진다.

그리고 서양의학의 내용을 다루더라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이 가능하다. 우선 전통적인 학술사 중심의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는 의료의 사회적 맥락이나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바람직하기는 양자가 적절히 결합된 형태일 것이다. 그밖에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의학사의 뒷이야기, 지금 보면 황당할 치료법, 에피소드 등이 중심이 된 소위 ‘재미있는 의학사’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역사가 가벼운 흥밋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의과대학의 의학사 강의에서 우리나라 의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있더라도 개항 이후 서양의학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의과대학 의학사 강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물론 의학사 강의의 절대시간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교재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크다. 다시 말해 서양의학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개론서들이 번역, 혹은 저술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의학사를 그와 같이 정리해 놓은 책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의과대학 의학사 강의에서 한국의학사가 포함되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이다.

다소 이례적인 시도로써 2010년 1/4분기에 연세의대에서 한국의학사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의학의 역사를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분리시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룬 유일한 예라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4. 연세의대 한국의학사 강의 개설 경험

1) 강의내용

2010년 1학기 연세대학교 본과 2학년 선택실습과목에 ‘한국 의학의 역사와 현실(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을 개설하였다. 선택실습과목은 매주 2시간씩 모두 8주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 의학의 역사와 현실’은 3월 9일 첫 강의를 시작하여, 4월 27일 마지막

강의를 마쳤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연구원들이 내부 세미나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강의 진행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세미나를 통해 한국사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음에 유의하자, 강의안을 ppt로 만들자, 개설적인 내용의 전달보다는 해당 시기 의학의 성격, 특징, 변화 그리고 그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자, 대중용 교과서 출간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자 등을 결정하였다. 내부 세미나 이외에 의학사 강의 경험이 있는 다른 의과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학사가 개설된 의과대학은 많지만, 그 과목을 전담하는 전임 교수를 둔 곳은 적은지라 초청 대상은 소수에 머물렀다.

강의는 한국사의 일반적인 시대 구분에 따라 각 시대별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강의 소개, 고대의학, 중세의학, 근대의학 1, 근대의학 2, 현대의학 1, 현대의학 2,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강의 교재는 특별히 선정하지 않았으며, 강의는 강사가 ppt를 준비하여 한국 의학의 역사적 내용과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시대의 모든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판단 아래 각 시대를 대표하는 주제를 몇 가지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였다. 각 주제마다 이루어진 강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개의 경우 본 강좌의 전체적인 소개와 함께 의과대학에서 의학사를 배우는 의미와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학사 교육의 현황과 제한점을 말하였다. 그리고 본 강좌가 그러한 기존 의학사 교육의 문제점과 제한점을 극복하는 시도으로써 마련되었음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의학 속에서 한국의학의 위치를 조망하고 한국의학사를 공부하는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였다. 한국적 의료상황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특수성의 예로써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병존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역사적 접근 방식이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아울러 의학사 일반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의학사 연구의 경향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고·중세 의학의 경우 한국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전통의학이 성립되는 과정을 탐구해 보았다. 한국은 선사시대부터 생활 속에서 형성된 고유의 질병치료방법이 있었으며, 이것이 중국의 문자를 만나면서 문자화되었고 삼국시대에 이르러 중국 의학과 만나면서 점차 중국의학의 체제 속에 편재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 고대의학이 가졌던 고유성이 동아시아 중심의학으로서 보편성을 가진 중국 의학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까지 살펴보았다.

삼국의학의 중심에는 고구려 의학이 있었으며 신라의학의 발전에 그 영향이 컸다는 사실을 414년 일본 윤공제를 치료한 신라의사 김무의 사례와 현전하는 삼국시대의 처방들을 읽어보고 고대의학의 성격이 귀족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신라 통일기와 고려로 들어가면서 당송의학과 의료체제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점차 발달되어 가는 모습을 소개하였다. 특히 교역과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전염병 유행과 그 파장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민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점차 증가해 가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근대의학 1의 경우 인두법과 우두법의 전파과정 및 인두법과 우두법의 효과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인두법은 중국에서 개발되어 서양을 거쳐 확산되었고, 다시 중국, 일본 등을 거쳐 조선에 보급되었으며 19세기에는 인두법이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다. 인두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었으며, 수묘법과 한묘법이 가장 선호되었다. 두창 예방의 획기는 우두법의 실시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세기 초부터 우두법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지식영은 우두법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정부는 ‘중두규칙’을 반포하고 중두의양성소를 설립하여 우두보급을 적극 전개하였다.

대한제국은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전염병예방규칙’을 반포하는 한편 법정전염병을 제정하여 질병보고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의학교를 설립하여 서양식 의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병원 등을 설립하는 등 근대적 의학교육 및 의료체계를 건립해 나갔다.

근대의학 2의 경우 전통의학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의학이었던 서양의학이 어떤 계기와 과정을 거쳐 성장해나갔는지, 그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양의학의 성장이 현실화된 시기가 식민지시기이기 때문에 강의 시기는 식민지시기에 집중하였다.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서양의사들은 권위와 그에 걸맞은 경제력을 갖춘 엘리트 계층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식민지는 한국 의사들에게 민족과 식민 사이에서 동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조성하였고, 그 속에서 성장한 한국 의사들은 문화계몽으로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한정시키기 시작했다는 점, 한국의 경제력이 의료 분야에서 복지를 현실화시킬 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식민 당국 역시 식민지라는 한계 때문에 그 복지를 추진할만한 충분한 의지를 가질 수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이야기하였다.

현대의학 1의 경우 해방 이후 이루어진 한국 의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한국은 민족에 근거한 근대국가의 수립을 추진하였다. 분단, 전쟁, 독재,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지는 과정은 한국사회를 급격히 변화시켜나갔고, 그 과정에서 사회변화에 연동된 의료체계가 만들어졌다.

해방 후 만들어진 의료체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식민지시기 일본

식 의학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면, 해방 이후에는 미국식 의학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국식 의학이 한국에 정착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루었다. 한의학의 부활, 그에 이은 의료이원화와 1977년 의료보험의 시작,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시작은 한국의 의료를 전변시킨 사건들이었다. 강의에서는 두 사건의 형성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의학 2의 경우 5·16 군사정변 이후 사회와 의료계에 초래된 급격한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군사정변 이후 의사동원령을 통해 의사들을 강제적으로 무의지역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한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와 아울러 1960년대와 1970년대 보건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무의촌해소를 위해 이루어진 다양한 정책적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그 중에는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을 무의촌에서 의무복무토록 한 것과 의사국가고시 불합격자에 대한 무의촌 근무 등이 있다.

또한 소위 ‘돌팔이’ 진료가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이를 의학사의 일반적인 틀 안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1977년 의료보험 시행의 역사적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세계 각국의 의료보험 현실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소비사회가 도래하면서 변화된 한국 의료체계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건강이 아닌 ‘웰빙’의 추구, 재벌의 병원 설립은 병원의 서비스 경쟁을 가속시킨 반면 의료기관의 대형화를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의약분업의 시행을 둘러싸고 전개된 의사파업 사태의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한국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역사적 과정에서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한국 의료보험의 현황과 향후의 전망, 양한방일원화 문제, 질병의 국제화와 그 대응, 복지로서의 의료와 산업으로서의 의료의 관계,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위한 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안들이 어떠한 의학사적 맥락에 위치해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앞으로 직면할 상황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상대화해 볼 수 있는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강의 경험을 토대로 강의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한국의학사 교재를 만들기로 기획하였는데 예상하는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론: 세계의학사 속의 한국의학사

1장 선사시대의 질병과 의학

2장 중국의학의 수용과 삼국시대 의학

3장 신라 통일기 의학과 관립 의학교육의 시작

- 4장 고려시대 의학과 『향약구급방』의 출간
- 5장 조선 전기 국가주도 의료체계 형성
- 6장 조선 중기 의학과 『東醫寶鑑』
- 7장 조선 후기 전통 의학의 다양화
- 8장 개항 이후 서양의학 수용과정
- 9장 대한제국기 근대적 의료체계의 구축
- 10장 식민지 의료체계의 형성
- 11장 1930년대 식민지 의료체계의 변화와 한의학
- 12장 해방 이후 한국 현대의료의 형성
- 13장 경제개발과 의료 환경의 변화
- 14장 소비사회의 도래와 의료의 산업화
- 15장 한국 현대의학과 그 전망

2) 강의에 대한 평가

‘한국 의학의 역사와 현실’은 선택실습과목 중에 하나인 까닭에 수강 인원이 많지는 않다. 더구나 일반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의 강의 시수의 반인 8주 강의인 까닭에 한국 의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은 못되었다. 하지만 다른 단과대학보다 많은 교수와 학과목을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의 특성상 8주라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었다.

예과 입학 이후 의학사에 대한 강의를 단속적으로밖에 접하지 못했던 학생들, 특히 한국의학사에 대한 강의는 거의 접해보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한국 의학의 역사를 개괄하는 과목인 ‘한국 의학의 역사와 현실’의 의미는 크다. 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선택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의료의 현실과 그 역사적 뿌리에 대한 관심에서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물론 주제 자체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대부분 의과학 위주의 교과과정에서 인문학과 관련된 강좌였다는 점도 선택의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자신이 의학을 배우고 시술할 한국의 시공간적 의미에 대해 고민을 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강의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서양의학이 아닌 한의학의 역사도 함께 교수되었다. 한의학의 내용이 아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인 만큼 학생들은 ‘의학’이라는 보편적인 학문이 내용과 무관하게 사회에 어떻게 수용되고, 변화되며 발전되어 나갔는지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서양의학이 전통의학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의학이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한국에서 서양의학 수용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강의는 시대별로 이루어졌지만, 그 구체적인 주제들은 보편적인 것들이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 전염병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 의사의 정체성 형성 등 현대 의사로서 고민해야 할 다양한 주제들이 강의되었다. 의과대학 졸업 후 대부분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 활동할 학생들이었기에 과거의 역사 속에 의사의 모습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수업 시수가 반으로 줄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강의가 강사의 일방적인 설명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참여 부족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였다. 의학사, 나아가 한국의학사를 공부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기에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학생들과 가까운 시기인 현대의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은 ‘옛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경험들이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당시의 역사와 현재의 우리가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강조가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 현실에 대한 관심을 역사적 맥락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들의 노력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다른 방식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고대의학의 경우 학생들은 관련 자료가 의외로 많이 남아있으며, 일본에 의학지식을 전해줄 정도로 한국의 의학이 발달했었다는 사실을 신기해하였다. 마지막 주에는 학생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과목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5. 과제와 전망

1) 의학사 교육 담당 인력 확보 및 재교육

현재 우리나라의 의학사 전문 연구자들은 극히 소수이다. 그나마 이들이 모두 의과대학과 관계를 맺고 의학사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각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의학사 강의는 많은 경우 의학의 다른 분야 전공자 중에서 의학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의 경우 미리 관련 자료를 찾아서 강의 준비를 하지만 비전공자로서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열정이 있는 분들은 보다 나은 강의를 위해 의학사에 관한 재교육의 기회를 갖기 원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학사 교육 담당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학회나 전문연구소 차원에서 의학사 교육 담당자를 위한 의학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학사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2) 교재의 편찬

위 항목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잘 편찬된 교재가 있다면 의학사 교육이 한결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의학사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출간되어 있어 관련 주제들에 대해 상당히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한된 시수와 다른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으로 의학사에서 많은 분량의 읽기를 의과대학생들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학사의 주요 주제들을 피상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간략하게 서술된 교재가 있다면 교육 담당자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의해 김두중이 동서양의학의 역사를 함께 실은 <동서의학사대강>이란 책을 출간한 바 있으나 실제 교재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이제 다시 동서양 의학의 역사뿐 아니라 주제적 관점의 접근방법도 담은 보다 포괄적이고도 간결한 의학사 교재가 편찬된다면 의학사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의학사와 의료인문학

과거의 의학사 교육은 의학의 역사를 통해 의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의학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토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목표는 중요하며 계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과거에는 의학사 하나만을 고려하면 되었지만 최근 의료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의학사를 어떻게 의료인문학 교육의 중요한 일부로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이 의학사가 별도의 과목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의료인문학 과목의 일부로 편입되는 현상이 점차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문학교육의 경우 의과대학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학이나 연극과 같은 예술적 활동이 주축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의료인문학 관련 해외 학회에 참석해보더라도 문학과 예술이 일차적인 관심 사항이며 의학사나 의철학을 위한 자리는 별로 없음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사 교육이 그 학문적, 교육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의료인문학 교육의 일부로서 통합되어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오늘날 의학사 교육자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내용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도 시도해볼 수 있고, 이를 문학이나 예술과 결합시켜 체험케 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의학사, 교육, 의과대학, 의료인문학

Abstract

Education of Medical History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YEO In-sok
Yonsei University

Medical history was first taught in Severance Medical College in 1946 by Kim Doo-jong, the founding father of medical history in Korea. Today, over half of the forty-three medical colleges in Korea include medical history courses. However, a lack of sufficient numbers of qualified medical historians means that many of the colleges experience difficulties in running the courses. As the number of medical historians is unlikely to increase sufficiently in the near future to meet the demand, a re-education program needs to be initiated for the current lecturers in charge of the medical history courses. Another challenge facing the history of medical education in Korea is the integration of medical history with medical humanities,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medical education. As medical humanities aims to develop sensibilities such as compassion in medical students, the field focuses more on literature and arts than on history and philosophy. Therefore, a new methodology is required to incorporate the teaching of medical history into the teaching of medical humanities.

Key words: Medical History, Education, Medical College, Medical Humanities

